73

◈여성 승모판 질환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연구

김 영 대, 김종원, 김진희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 교실

배경 및 목적 : 승모판 질환은 류마티스열에 의해 가장 흔히 초래되고 특히 여자에게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임신, 출산 등과 같은 여자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외과적 시술이 행해진 여자 환자의 승모판 질환에 대한 임상적 분석을 우선 시도하였다.

방법 : 부산대학교병원에서 1982년 3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승모판막에 대한 각종 수술을 시행한 493명의 환자 중 여자 환자 305명을 대상으로 증상의 발현과 진단, 수술방법, 수술성적 등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임상적 특성을 여자에게만 볼 수 있는 임신, 출산 등과 연관시켜 분석, 정리하려고 하였다.

결과 : 대상 환자의 평균 유병기간은 7.8년이었고 최초 진단이 임신 또는 출산과 관계 있는 경우가 62%였고 수술 전 임신 경험이 있는 환자는 79.7%였으며 원인 질환은 류마티스열이 가장 많았다. 수술은 판막치환술 250례, 개방성 교련절제술이나 판막성형술을 시행했던 경우가 31례 그리고 판막 재건술이 24례였는데 수술 사망률은 4.6%였다. 추적 관찰이 가능했던 260례의 환자 중 44례에서 합병증이 관찰되었고 추적기간 중 11례의 사망이 있었으며 15년 누적 생존률은 84.2%였다. 수술 후 임신을 한 경우는 조직판막으로 치환한 후에 7례, 기계 판막 사용 후에 12례 있었고 그 중 8례[기계판막 치환술 후 4례]의 출산이 있었는데 출생한 태아의 기형이나 이상은 없었다.

결론 : 승모판 질환으로 수술을 시행한 여자 환자에 대한 분석 결과의 보고와 함께 승모판 질환은 임신과 출산에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인조판막 치환술 후에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책임저자:김 종 원 (부산대학교) 발표자:김 영 대(부산대학교병원)